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질의응답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질의응답

○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을 해야 하며, 사전신고한 업체에 한하여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최장 ‘30년까지의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사전신고 결과로 등록 예정 물질과 사업자를 미리 파악하여 원활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할 수 있습니다.
- 업체는 조속하게 공동등록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등록을 준비할 수 있고, 유해성 시험 자료 공동 확보를 통해 등록비용을 분담·절감할 수 있습니다.

○ '15. 7월에 고시된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이미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도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 ‘15. 7월에 고시된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18. 6월까지 등록 유예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사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에 제조·수입했던 물질 중 향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할 예정이거나 더 이상 제조·수입할 계획이 없는 물질도 사전신고해야 하나요?

-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할 계획이 없는 물질은 사전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사전신고에서 용도는 수입자의 용도를 말하는 것인지 하위사용자의 용도까지 같이 조사를 해야 하나요?
 - 하위사용자의 용도입니다. 하위사용자의 용도를 조사하여 소비자 용도인지 산업용·전문가용인지 구분 후 구체적인 용도를 최대한 작성해야 합니다.

 - 사전신고 시 현재 취급하거나 취급 예상하는 모든 물질들에 대해서 전부 사전신고를 이행해야 하는데 모든 하위사용자 용도를 6월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용도는 소비자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용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소비자 용도인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파악된 용도로 사전신고하고 추후 보완하시면 됩니다.

 - 화학물질을 중화시켜 판매를 합니다. 이 중화반응 생성물은 제조된 물질로 보고 사전신고해야 하나요?
 - 중화반응에 의한 생성물 또한 제조이므로 사전신고 및 등록 대상입니다.

 - 수화물의 경우 수화물로 사전신고 및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무수물로 사전신고 및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수화물의 경우 모체인 기본형 무수물을 확인하여 그 무수물로 사전신고 및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사전신고 시 물질별 함량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 A 물질과 B 물질의 함량이 50:50인 경우 각 물질의 함량을 따져 제조·수입량을 환산해야 합니다.
-

- 사전신고 이후 제조·수입량의 감소 등 사업상 변수로 인해 제조·수입량이 1톤 이하로 감소한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 사전신고 이후, 제조 수입량의 감소, 물질 취급 중지 등으로 인해 등록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사전신고 기간(6월 30일) 이후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아예 취급하지 않았다가 6월 30일 이후에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게 된 경우 제조·수입 전에 늦은 사전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전신고는 6월 30일 이후에 신설 법인이 생기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를 6월 30일까지 이행해야 하는 대상은 기존에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업체이므로 새로운 제조·수입업체는 등록 유예기간 전까지 늦은 사전신고를 하시고 등록 유예기간 내 등록하시면 됩니다.
- ‘16년 이전에 1톤 이상 제조·수입을 하다가 ’ 16년 이후로 제조나 수입을 하지 않아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물질에 대해, ‘19년 이후 다시 제조·수입을 할 경우 늦은 사전신고를 하면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 16년 이전에 제조·수입한 물질도 6월 30일 까지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 ‘16년도 이전 제조·수입 물질은 늦은 사전신고 기간에 적용됩니다. 해당 톤수의 등록 유예기간 이전에 사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활한 협의체 운영 및 등록 서류 준비를 위해 등록 예정인 물질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A라는 CAS No.로 사전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다른 CAS No.로 확인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운 CAS No.로 늦은 사전신고는 가능한가요?
 - 새로운 CAS No. 물질에 대해 과거 1톤 이상 제조·수입한 이력이 없다면 늦은 사전신고가 가능합니다.

 - 용도분류체계는 원재료의 용도인지 그 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용도인지 궁금합니다.
 - 그 원재료(물질)가 제품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재료가 혼합물인 경우 각 물질에 대해 등록하여야 하고 각 물질의 혼합물 내 용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 분류·표시 자료 작성 시 NCIS와 KOSHA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NCIS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업체가 추가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신고에 유해성 분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 사전신고를 할 때 유해성 분류 정보를 입력해야 등록 시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 가능하며, 필요한 시험 자료를 준비 할 수 있습니다. 국외 제조자를 통해 해당 물질의 유해성 분류 표시를 확인해서 제출하면 되며 같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업체마다 보유한 유해성 분류 표시가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 유해성 분류를 ‘해당 없음’ 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 분류가 없으면 ‘해당 없음’ 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우선 국외 제조자를 통해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 표시를 확인합니다. 국외 제조자한테 없더라도 EU나 노동부, 과학원에서 분류 표시를 갖고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확인하고 분류 표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 신고할 때 양이 1~10톤에서 5톤~8톤으로 올라가는 것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화평법의 톤수 범위 내에서는 따로 변경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톤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0톤이었다가 10톤~100톤 사이로, 톤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 제조를 수탁 받은 업체인 경우, 위탁자가 영업기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등록 및 사전신고는 위탁자와 수탁자 중 어느 쪽에서 이행해야 하나요?

→ 위탁자가 사전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사전신고 및 등록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신고 시 해외 제조자가 제공하는 문서의 분류 및 표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수입하는 물질 중 표기가 A+B=95%와 같은 물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조자가 제공하는 MSDS 등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하며 A 95%, B 95%로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
- 두 군데의 국외 제조자에게 동일 물질을 각각 60톤씩 수입합니다. 한 국외 제조자는 OR을 선임하여 진행하고 다른 국외 제조자의 물질은 본사가 직접 사전신고를 진행해야 할 때, 우리 회사는 사전신고 물질 범위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 10~100톤의 범위로 신고하면 됩니다.

- 유해법상에서 유해성 심사를 받은 자는 사전신고 대상인가요?

→ 부칙 제2조에 따라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은 자는 제조 수입량 등의 정보 등을 포함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등록으로 갈음됩니다.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유해법에서 심사를 받고 해당 물질이 유독 물질로 고시되었지만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 부여가 되지 않은 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봐야 하나요? 유독물질의 염류로 해당되는 물질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 해당하는 CAS 번호가 아직 기존물질로 NCIS에 표기되지 않은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보고 사전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 기존화학물질로 사전신고 및 등록 대상입니다.